

傳統工藝產業에 관한 事例研究*

安城鎚器의 現況과 振興方案

李 桐 弼

研究員, 農村開發室

- I. 問題의 提起
- II. 鎚器產業의 發達과 社會經濟的 含蓄性
- III. 安城鎚器產業의 現況과 振興方案
- IV. 맷는 말

I. 問題의 提起

傳統工藝品은 옛부터 전해 오는 技術 및 技法을 근간으로 하되 일부 工程이 機械化 등으로 개량되어 제조되는 工藝品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日常生活에 주로 이용되고, 둘째, 製造工程의 주요 부분이 手工業의이고, 세째, 傳統的技術 또는 技法에 의해 제조되어, 네째,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原材料를 이용하고, 다섯째, 일정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集團的으로 그 제조에 종사한다(中小企業振興公團 1982, p.10). 이와 같은 傳統工藝品의 특징은 전통적 技術과 지역의 賦存資源을 활용하여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勞動集約의 產業이라는 점에서 社會經濟的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

니고 있다.

우리 나라의 傳統工藝品으로는 原料를 기준으로 石工(모시, 삼베, 비단 등), 陶器工(자수, 배꼽 등), 木工(가구, 목각, 목함 등) 도자기 공예(백자, 청자, 응기 등), 草莖工(완초, 갈포 등), 칠공예, 금속공예, 石工, 竹細工, 紙工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공예는 처음에는 農民들이自家의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農家副業 형태의 自給的生產을 하였으나 점차 전문화하여 統一新羅 시대를 거쳐 高麗시대에 이르러서는 匠人們에 의한 官營手工業 형태로 발전하였다(姜萬吉 1984, p.36). 따라서 朝鮮前期에는 30개 京衙門에 소속된 2,795명의 京工匠이 129개 품목의 軍器製造와 王族 및 賴族들의 生活用品과 장식품 제조에 종사하였으며, 그외 27개 품목에 3,764명의 外工匠이 地方官廳의 工藝品 需要를 충당하고 있었다(崔虎鎮 1981, p. 161). 이와 같이 工藝品生產이 국가에 의해 통제 운영되어 私的 生產活動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었으나 燕山, 中宗朝에 이르러 支配體制의 완파 官匠制 자체의 모순으로 官營手工業은 쇠퇴하고 民營手工業이 발전하였으며, 商業 및 화

* 本論文은 傳統工藝產業에 대한 品目別 研究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論文의 構想에서 作成까지 많은 忠告와 助言을 해 주신 崔洋夫博士께 깊이 감사드린다.

체제도의 발달과 함께 朝鮮朝 後期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開港과 함께 대량 유입된 선진공업국의 近代的 製品과 日帝의 식민지정책 및 해방 이후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工業化 과정에서 미처 工場制 手工業으로 발전하지 못한 대부분의 傳統工藝產業은 斜陽產業으로 전락하였다.

현존하는 주요 傳統工藝產業으로는 安城의 鐮器를 비롯해 江華의 화문석, 韓山의 모시, 潭陽의 죽제품, 全州의 한지 및 나전칠기와 木工藝, 石工藝, 도자기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傳統工藝產業은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傳統文化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觀光紀念品, 장식품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많은 雇傭效果와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輸出產業과 農外所得增大施策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傳統工藝產業 육성은 中小企業振興公團의 民俗工藝產業育成事業과 內務部의 地方特產物育成事業 및 農水產部의 農漁村副業團地育成事業 등으로 여러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시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傳統工藝產業의 展開過程이나 현황과 문제 등에 대한 體系的研究이 되어 있지 않다.

本稿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傳統工藝產業의 하나인 鐮器產業의 展開過程과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振興方案을 모색한 것으로서 傳統工藝產業에 대한 品目別 研究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資料의 制約으로 인해 鐮器產業 전반에 걸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비교적 傳統的인 技術과 技法으로 鐮器를 생산하는 安城地域의 鐮器製造業體를 事例研究하였다.

II. 鐮器產業의 發達과 社會經濟的 含蓄性

「안성마춤」이라는 말이 생겨 날 만큼 安城의 鐮器는 널리 알려졌다.¹ 安城에는 한때 60여 개의 공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豐和鎗器產業社」 등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安城鎗器產業의 성장, 쇠퇴 등 展開過程과 진흥방안에 대한 검토는 鐮器產業의 育成과 傳統工藝產業의 振興은 물론 우리의 실정에 맞는 農村工業開發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1. 鐮器產業의 發達

鎗器가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은 青銅期時代라고도 하나 정확한 起元은 찾을 길이 없다. 그러나 新羅景德王(742~765) 때 「鐵鎗典」이란 기구가 설치되어 金屬工藝를 관광하였으며 이 때 皇龍寺 大鐘을 비롯하여 奉德寺鐘 등이 만들어진 기록이 있다(孟仁在外 1980). 그후 高麗時代에 들어오면서 화병, 銅製香爐 등을 비롯해 鐮器로 만든 食器가 상류사회 가정에 사용되면서 種類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需要도 급격히 증가하여 李朝時代에는 生活必需品으로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鐮器의 생산은 다른 傳統工藝品과 마찬가지로 工匠이라 부르는 專門手工業者가 담당하였는데 王族내지 貴族들의 생활품과 장식

¹ 安城은 古來로 鐮器가 名產이요 안성유기는 전고하고 정교하게 제조하므로 전국에 환영을 받아 왔나니 此에 因하여 物品이 전고하든지 事機가 확실하든지 或物致之物이 不意之需에 可合하든지 하면 「안성마춤」이라 하여 全國에 통용된다.”(金台榮 1927)

表 1 朝鮮時代의 鐮器製造技術者 分布

단위: 名

道別	1471年 ¹⁾ 世祖 (經國大典)	1866年 ²⁾ 高宗 2년 (大典會通)	地域
漢陽(京工匠)	17	17	世祖 때는 工曹 8명, 內需司 5명, 尚衣院에 4명
京畿道(外工匠)	3	3	水原, 廣州, 楊州에 각 1명
忠淸道(〃)	4	4	忠州, 清州, 公州, 洪州에 각 1명
慶尙道(〃)	7	7	慶州, 尙州, 星州, 安東, 晉州, 金海, 大邱에 각 1명
全羅道(〃)	6	6	濟州, 全州, 南原, 羅州, 長興, 順天에 각 1명
江原道(〃)	2	2	江陵, 原州 각 1명
黃海道(〃)	2	2	黃州, 海州 각 1명
永安道(〃)	3	4	永興, 安邊, 咸興 각 1명
平安道(〃)	8	8	平壤, 寧邊, 安州, 義州, 定州, 成川, 江界, 肇城 각 1명

1) 崔虎鎮, 「韓國經濟史」, 博英社, 1981, p. 161.

2) 孟仁在, 「安城鑄器匠」, 文化財管理局, 1980.

註: 劉教聖의 「韓國商工業史」에 의하면 “經國大典에 京工匠 2,841명과 外工匠 3,656명이 있었으나, 正祖 5년(1785年) 京匠이 해체되고 正祖 9년에는 外工匠도 유명무실”해 있는데, 그 후인 大典會通(高宗 2년, 1866년)의 外工匠 5,451명은 형식적으로는 官營工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私營工匠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품을 제조하던 京工匠 중 鐮匠은 工曹에 8명, 尚衣院에 4명, 內需司에 5명 등 모두 17명이 있었으며, 外工匠으로는 道別로 平安이 8명, 慶尙이 7명, 全羅가 6명 등 전국에 36명이 있었다 (崔虎鎮 1981, pp.159—161).

그러나 官匠제는 국가 財政의 궁핍으로 匠人們에 대한 대우 불충분과 관리들의 官匠私役, 民間需要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官匠이 해체되고 점차 私匠이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自由手工業者에 의해 영위되던 鐮器產業은 李朝末~日帝初期까지 절정을 이루었으나 太平洋戰爭 이후 일제의 軍需物資 조달을 위한 銅 사용 금지조치와 鐮器製品의 몰수로 일시 중단되었다. 해방 후 다시 鐮器產業이 중흥되는가 하였으나 가정용 연료가 연탄으로 전환됨에 따라 놋그릇의 부식이 심해 그 사용이 불편해지고, 1950년을 전후하여 서양 문물이 대거 유입, 生活用器들이 알루미늄이나 스텐레스製品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鐮器產業은 점차 較陽化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觀光記念品 및 장식품으로 鐮器의 需要가 증가하는 동시에 傳統文化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침으로써 京畿道를 중심으로 鐮器製

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鐮器產業의 現況

1982년 현재 전국에는 약 150여개의 鐮器製造業體가 있고 이중 70여개 업체가 서울 및 京畿道地域에 立地하고(韓國工藝協同組合 1983)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인 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기도의 「民藝品生產業體實態調查」에 의하면 부천에 9개 업체, 성남에 4개 업체 등 19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부천의 경우 이외에도 약 60개 업체가 貨加工形態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부천, 大和工藝社 工場長證言, 1983). 이와 같이 부천, 성남 등지에 鐮器業體가 집중해 있는 것은 소음공해 등으로 최근에 서울에서 이전해 온 업체들이 몰렸기 때문인데, 그러나도 현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假建物이나 貨貸工場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특정지역에 鐮器專

表 2 京畿道內 鐮器製造業體의 地域的 分布

地域別	부천	성남	안성	안양	計
業體數	9 (60.0)	4 (26.6)	1 (6.7)	1 (6.7)	15 (100.0)

資料: 京畿道, 「民藝品 生產業體 實態調查」, 1982.

門工業用地를 개발하여 이들 업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나라 鐮器製造業體의 製品生產額은 1980년의 205억 원에서 1981년에는 298억 5천만 원으로 약 45.6%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수출실적은 53%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鐮器製品의 需要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韓國工藝協同組合 1983).

이와 같이 최근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鐮器產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鐮器의 生產 및流通을 담당하는 關聯產業體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事業을 영위하고 있다. 즉 「產業經濟研究院」이 경기도 및 서울의 70여개 鐮器業體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資產規模는 1,100~2,500만원, 從業員 規模別로는 5인 미만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규모가 지극히 영세함을 알 수 있다.

둘째, 鐮器製品의 生产은 대부분 숙련된 技能工의 手作業에 의존하기 때문에 勞動集約的 產業

表 3 鐮器業體의 資產規模別 分布

단위: 백만원

地域	5百萬 원以下	6~10	11~25	26~50	51~ 100	100百萬 원以上	計
京畿 및 서울	8	17	22	15	4	4	70
安城	—	—	1	—	—	—	1
合 計	8	17	23	15	4	4	71
構成比(%)	11.3	23.9	32.5	21.1	5.6	5.6	100.0

資料: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민예산업 종합육성방안」, 1982. 9.

表 4 鐮器業體의 從業員 規模別 分布

단위: 個所

地域	5名以下	6~10	11~20	21名以上	計
京畿 및 서울	35	25	6	4	70
安城	—	1	—	—	1
合 計	35	26	6	4	71
構成比(%)	49.3	36.6	8.5	5.6	100.0

資料: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민예산업 종합육성방안」, 1982. 9.

의 성격을 갖는다. 鐮器의 製造工程을 보면 原副資材를 선별, 合金내지 鎔解작업을 거쳐 半製品을 만든 후 보르반 작업과 로구로작업 등 15단계의 工程을 거치는 동안 세밀한 手作業을 요하기 때문에 기계화된 시설에 의한 一貫作業이 곤란하다.

세째, 鐮器의 原料인 銅은 비교적 우리 나라에

그림 1 鐮器製造工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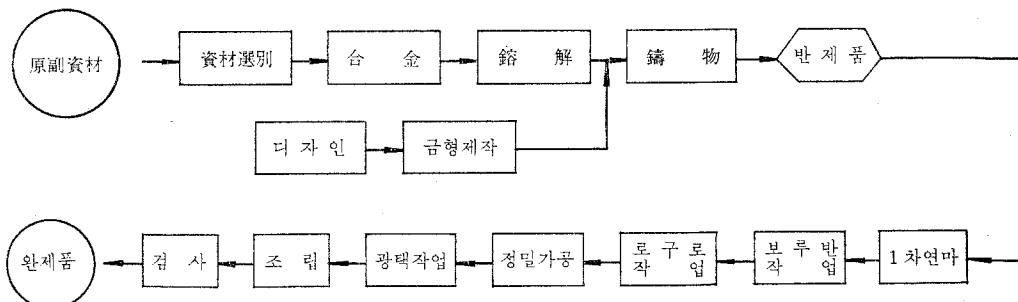


表 5 鐮器原料의 種類 및 用途

區分	合 金 比 率	用 途
· 青 銅—鎔鐵(방자)	銅 70~72%, 주석 28~30%	태야, 양푼, 수저, 놋상, 징, 팽가리 등
—青鐵(상철)	銅 80~85%, 주석 15~20%	식기류, 제기류 등
—朱鐵	銅 90~95%, 주석 10~5%	식기류, 제기류
· 白 銅(백동)	銅 75~85%, 니켈 15~25%	화로, 신선로 등
· 黃 銅	銅 60~65%, 아연 35~40%	향로, 향합, 쪽배, 화로

資料: 文化財管理局, 「安城鎔器匠」,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139호, 1980. 10.

풍부하게 부존된 자원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古物商을 통해 수집한 활동 및 청동조각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附加價值가 높다.

네째, 鑄器產業은 오랜 역사적 展開의 결과 일정한 지역에 產地를 형성하고 數個業體들이 群集하여 地域特產物로 생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鑄器製品生產의 성격과 관련하여 오늘날 鑄器產業의 育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勞動集約的 產業으로 雇傭效果가 크기 때문에 農家의 農外所得增大施策으로서 의미가 크다.

둘째, 비교적 적은 資本投資와 간단한 기계설비로 높은 附加價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輸出產業으로 開發可能性이 크다.

세째, 일정지역에 군집하여 地域特產物을 생산함으로써 觀光民藝產業으로 육성할 여지가 크다.

네째, 傳統的인 技術 및 技法을 이용하므로 傳統文化의 發展이라는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III. 安城鑄器產業의 現況과 振興方案

1. 安城鑄器產業의 展開過程

언제부터 安城地方에서 鑄器產業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正祖 때 徐有榘가 지은 「林園經濟志」에 記述된 내용으로 보아² 朝

鮮中期 무렵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듯하다. 당시 安城鑄器는 궁중 진상품목의 하나였으며, 서울의 士大夫들이나 地方의 부호들은 너나할 것 없이 安城鑄器를 소유하고 있었고 서울 市場에서도 全國의 各種 鑄器 중 가장 우수한 品目으로 삼았다(安城郡誌編輯委員會 1981, pp. 183—184).

朝鮮中期 官營手工業의 몰락과 함께 京工匠에 소속되어 있던 鑄匠들이 서울에서 가까운 安城으로 移轉하여 自由手工業者로 계속 유기를 제조한 것이 安城에 鑄器產業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안성마춤」이라는 俗談을 창조하면서 안성유기가 전국 시장을 지배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분적이나마 다음 몇 가지 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安城地域은 넓은 京畿平野와 서울이라는 커다란 消費市場의 인근에 위치하여 풍부한 수요를 갖고 있었다. 특히 朝鮮時代에는 共同營農을 위한 두레가 발달하여 이에 필요한 農樂器類의 수요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名門豪族들이 安城에서 유기를 주문, 제작해 가는 「마춤」이 크게 盛行하였다(安城郡誌編輯委員會 1981, p. 184).

둘째, 鑄器는 응기나 사기 등 다른 재질의 그릇들보다 파손될 염려가 적고 열전도율이 낮아서 食器類로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安城鑄器는 품매가 아름답고 아담할 뿐만 아니라 광택이 뛰어나는 등 品質이 매우 매우 좋았다. 安城地域의 경우 당시로는 최고의 專門手工業者였던 京工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쌀밥을 主食으로 하는 서울 士大夫들이 그릇을 마춤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릇이 적고 아담하여 미관상 보기에도 좋았다.

세째, 安城은 地理的으로 交通의 要地에 위치

² 湖南의 求禮地方과 開城, 그리고 平安道의 定州地方 등에서도 鑄器를 生產하였지만 安城鑄器가 으뜸이니 安城과 龍仁의 邑內場과 長湖院場에 安城에서 만든 놋그릇이 많이 나온다. (뿌리깊은나무社 1977, p.223)

하여 일찌기 商工業이 발달하였다.³ 安城은 湖南과 嶺南을 통파하는 관문으로 두 地方에서 생산되는 特產物은 대개 이곳을 통하여 서울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일찌기 商工業이 발달하였다. 특히 安城市場⁴은 大邱, 全州와 함께 朝鮮 3大市場의 하나로 전국의 商人們이 모여 들었는데 이와 같은 場勢를 이용한 安城鎌器의 豪華적 인선전 및 販賣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背景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安城의 鎌器產業은 크게 4段階로 발전 및 展開過程을 구분할 수 있다.

第1段階는 안성지역에 鎌器產業이 시작된 朝鮮初期부터 日本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太平洋戰爭을 일으킨 1938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太平洋戰爭 무렵은 人口增加와 身分階級의 해체 및 所得水準의 向上으로 인한 鎌器의 需要가 증가하면 시기이다. 朝鮮末期의 경우 10여개의 工場이 있어서 전국적인 消費를 충족해 왔으나 1938년 경에는 日本人까지 가세함으로써 「安城鎌器製造株式會社」라는 法人 1개소와 담뱃대 제조공장 40개, 숫가락 제조공장 3개, 綜合鎌器工場 15個 등 59개의 鎌器關聯製造業體가 安城鎌器의 절정을 이루었다(孟仁在外 1980).

第2段階는 일본이 太平洋戰爭을 일으키기 시작한 때부터 해방 전까지의 5년간이다. 이 기간 중 日本은 軍需物資 외에는 銅使用을 엄격히 통제하고 각 가정의 놋그릇까지 물수함으로써 鎌器製作이 중지되고 결국에는 鎌器產業 자체가 없어지는 수난을 당하였다. 그나마, 유기산업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렵 뜻있는 鎌器匠들이 산속으로 숨어다니면서 鎌器를 제조하였기 때문이다(人間文化財 鎌匠 金根洙 證言).

第3段階는 해방 이후부터 6·25動亂을 거쳐 1950년대 말까지인데 이를 다시 6·25動亂까지의 擴大期와 그 후의 衰退期로 구분할 수 있다. 擴大期의 경우 해방과 더불어 邑內 곳곳에서 鎌器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食器類를 중심으로 수저, 담뱃대 등과 해방의 감격으로 급작히 성행한 農樂器具까지 만들게 되어 动亂直전에는 37개업체로 확대되는 성황을 누렸다(安城郡誌 編輯委員會 1981).

그후 大都市의 燃料가 연탄으로 바꿔짐에 따라 주로 부엌에서 사용되는 놋그릇은 腐蝕이 심해지자 日帝末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알루미늄과 스텐레스가 鎌器를 부분적으로 替代하기 시작하여 需要가 점감하자 1950년대 말 鎌器工場은 20여개로 감소하였다(뿌리깊은나무社 1977 p. 223).

第4段階는 1960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인데, 이 기간에는 유기가 알루미늄과 스텐레스 제품으로 본격적으로 替代되었을 뿐만 아니라 西歐의 文物이 대량 流入되면서 鎌器 담뱃대, 등잔류까지도 소용이 없게 되자 鎌器의 消費는 격감하고 매년 한 두개씩 鎌器業體들이 사라져 지금은 1개업체만이 安城鎌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國民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도 점차 安定되면서 이제까지 生活必需品으로 이용되던 鎌器가 觀光記念品 대지는 장식품으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이 부분의 需要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³ 李朝時代에 安城은 우리 나라 商工業의 중심지로 鎌器를 비롯해 콧신과 한백지, 담뱃대, 것, 말련자 등을 만드는 手工業이 매우 발달하였다(安城商工會議所 事務局長 證言, 1983).

⁴ 千字文 풀이에 「별列」字를 “이를 아래 安城場에 八道物產 별列”이라는 귀절에서도 安城市場의 場勢를 짐작할 수 있으며, 서울의 東大門市場이나 南大門市場보다 두 種類의 商品(써래와 묘)이 더 많이 난다고 하였다.

表 6 安城 鑄器產業의 變遷過程

第1段階(~1938)	第2段階(1939~1945)	第3段階(1946~1959)	第4段階(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安城 鑄器產業 成長期 · 李朝末 鑄器工場 10個 1938년은 鑄器 및 관련공장 59個 · 人口增加와所得增加로 인한 鑄器消費 점증 · 食器, 佛器, 祭器類, 담뱃대,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鑄器產業 斷切期 · 鑄器工場 폐업 · 銅 使用 금지령 및 일제의 鑄器 불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安城 鑄器 復興期 · 6·25 이후 鑄器工場 37個 1950년대末 鑄器工場 20個 · 물수된 食器類 및 農樂器類 消費격증 · 食器類, 樂器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安城 鑄器產業 衰退期 1982년 鑄器工場 1個 · 연탄使用으로 인한 부식, 알미늄과 스테으로代替 · 食器類 및 장식품

2. 安城鑄器產業의 現況과 問題點

가. 安城鑄器의 種類 및 特徵

鑄器의 製作方法은 鋸削를 두드려 만드는 방
자식과 鍛물을 녹여 놓는 鑄物式으로 구분된다.
安城에서는 食器, 祭器, 佛器 등 傳統生活用品
을 주물식으로 鑄器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 전
통생활용품을 제작하는 鑄器製造業體는 安城을
비롯해서 安養과 金泉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鑄
物式으로 제조하는 곳은 安城뿐이다. 안성유기
제조업체의 경우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근에 와서 馬牌나 각종 動物像 등 장식품이나
완구류를 부분적으로 만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주로 전통생활용품을 만들고 있는데, 他地域의
대부분 鑄器製造業體들이 輸出을 목표로 外國人

들의 기호에 맞는 사진액자, 화병, 촛대, 재털
이, 벽걸이 등 장식품이나 여러 가지 動物像과
같은 완구류를 주로 만들고 있어서 安城鑄器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현재 안성에서는
食器類, 婚事用器, 祭祀用器, 佛器類, 煙房用具
燈盞類 등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 安城鑄器產業의 現況

安城邑 凤山洞에 위치하고 있는 安城鑄器工場
은 1946年 3月 「安城鑄器工業社」로 設立, 稼動
되어 오다가 鑄器需要가 감소함에 따라 1960년
2월 規模를 축소하여 현재의 「豐和鑄器產業社」
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安城鑄器工場의 規模는 부지면적 410坪에 建
坪 105坪이고, 資產 3,000만 원(固定資產 2,000만
원), 從業員은 10명 규모의 영세기업이다(<表 9>).

表 7 全國 主要 傳統鑄器 製造業體

所 在 地	代 表 者	製 作 法	主 要 生 產 製 區	備 考
京畿道 安城	金 根 淳	鑄物式 鑄器製作	食器, 佛器 및 祭祀用器類	1983. 6. 無形文化財 指定
京畿道 安養	李 凤 周	방자식 鑄器製作	정, 팽가리 등 農樂器類	1983. 6. 無形文化財 指定
慶 北 金泉	金 一 雄	방자식 鑄器製作	정, 팽가리 등 農樂器類	—

規 8 安城鑄器의 種類

區 分	製 區 種 類
食 器 類	옥바리 및 연엽七脊銅床器(32個), 九脊銅床器(36個), 주전자 세트(大, 中, 小)
婚 事 用 器	식기, 대접, 수저, 젓가락, 요강, 세숫대야
祭 祀 用 具	구삼벌 및 제잔대, 향로, 향합, 촛대 등 15種
佛 器 類	대불기, 소불기, 범종, 바라 등 9種
緩 房 用 具	화로, 부젓가락, 부삽 등 7種
燈 盞 類	油燈등잔, 경경등잔, 나비촛대
其 他 類	마파, 한자문수반, 공작, 참새, 학, 오리, 남문종, 백조 등 완구류

表 9 安城鎚器製造業體의 規模

부지 面積 (坪)	전 축 面 積(坪)					從業員數(名)		
	사무실	작업장	창고	정서*	計	기능직	노무직	計
410	5	50	20	30	105	7	3	10

* 1983년 道의 支援事業으로 建設中임.

主要施設로는 鑄物爐(용광로)가 3기, 나사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보루반이 1대, 주물할 때 생기는 검은색 재거 및 보다 정밀한 모형을 가공하는 로구로 2대, 그외 선반과 그라인더가 2대씩 있으나 施設規模가 영세하고 노후한 것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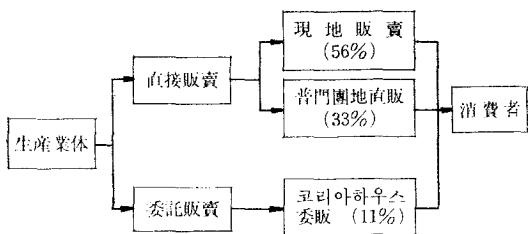
安城鎚器의 生產은 1960년대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豊和鎚器產業社의 경우 美國, 서독, 스웨덴 등지에 輸出함으로써 비교적 호황을 이루어 왔으나 1972년 외국수출의 중단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3,000點 가량 생산하면 1974년을 轉換點으로 하여 매년 평균 43%씩이나 증가함으로써 1982년에는 52,640點을 생산하였다. 1982년 생산액은 8,810만 원이며 이중 약 1,587만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生產製品을 品目別로 보면 生產額基準으로 食器, 祭器 및 佛器類가 14.4%, 주전자가 24.6%, 마페가 10.8%, 기타가 50.2%로 약

表 10 安城鎚器의 製品別 生產 및 販賣現況, 1982

製區別	生産量(A)	販賣量(B)	生産額	販賣比率(B/A)
食器類	點 1,350 (2.6)	點 1,225 (2.6)	千圓 8,100 (9.2)	% 90.7
주전자類	1,400 (2.6)	1,260 (2.7)	21,700 (24.6)	90.0
祭器類	1,260 (2.4)	1,134 (2.4)	3,780 (4.3)	90.0
佛器類	130 (0.2)	117 (0.2)	780 (0.9)	90.0
馬牌	19,000 (36.2)	17,100 (36.1)	9,500 (10.8)	90.0
其 他	29,500 (56.0)	26,550 (56.0)	44,250 (50.2)	90.0
計	52,640 (100.0)	47,386 (100.0)	88,110 (100.0)	90.0

資料：安城郡 殖產課 商工係, 1983.

그림 2 安城鎚器의 流通經路



50%가 傳統的인 生活必需品이다.

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은 安城地方에 찾아오는 전국의 消費者 및 觀光客과 民藝品商을 통해 판매되는데 流通經路別 販賣實態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즉 안성에서 生產품의 약 56%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 외에 慶州 普門團地의 記念品센터 直販이 33%, 서울 코리아 하우스 委販이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주 普門團地의 직판장을 폐쇄하고 農協에서 開設하고 있는 農家工產品販賣센터에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安城鎚器產業의 問題點

安城鎚器產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工場立地上의 문제이다. 현재의 안성유기공장이 소재하는 安城邑 凤山洞 351번지는 都市計劃法上 住居地域으로 공장의 改補修나 擴張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鎚器의 제조에는 분진, 소음과 함께 납을 비롯한 重金屬의 公害가 배출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별도의 工業用地를 조성하여 유기공장을 移轉해야 한다.

둘째, 原料의 安定的인 調達問題이다. 鎚器製品의 原料로 銅과 주석 및 아연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원료인 黃銅의 경우 일반

적으로 수입품인 브라스 스크랩(brass scarp)을 사용하고 있으나 安城에서는 인근 및 서울, 대구 등지의 古物商으로부터 중간수입상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原料調達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安城鎗器產業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量의 원료를 安定的으로 調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째, 技能人力의 確保問題이다. 유기의 제작은 대부분 手作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工程마다 숙련된 技能人力이 필요하다. 현재 안성에서는 숙련공 및 技能工 6명과 경습공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기술을 습득한 후 후 純職率이 높기 때문에 技能人力을 養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983년부터 政府支援으로 매월 3만원씩의 임금을 보조하여 3명의 見習工을 양성하고 있으나 그 規模나 支援額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新製品開發의 限界를 들 수 있다. 유기 제품의 수요가 생활필수품에서 장식품 및 관광기념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消費者들의 기호에 맞는 新製品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영세한 개별업체로서는 과중한 開發費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新製품의 개발에 限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비록 새로이 개발된 제품이라도 모방이 용이하여 독자적인 開發權의 유지가 곤란하다.

다섯째, 市場이 제한되어 있고 流通基盤이 취약하다. 안성에서 제작되는 유기는 대부분 傳統的인 生活필수품이기 때문에 需要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현재는 일부 주문생산으로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는 우연히 이 지역을 방문하는 消費者들에게 觀光記念品으로 판매되고 있느니만큼 적극적인 市場開發

이 요구된다. 특히 1972년부터 중단되고 있는 海外市場의 개척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3. 安城鎗器產業의 振興方案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安城의 鎗器產業은 새로운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주 年平均 40% 수준의 높은 수요증가가 뿐만 아니라 제품의 消費構造 역시 전통적인 생활필수품에서 장식품이나 완구류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경제 성장과 함께 鎗器製品의 需要는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있다.

그러나 오랜 침체과정을 겪는 동안 대부분의 鎗器業體들이 폐업하거나 轉業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업체도 規模의 零細性과 市場의 制限, 技能人力 확보곤란 등으로 증가하는 유기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鎗器產業의 진흥은 傳統文化의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과 地緣產業, 특히 農村工業開發은 물론 수출산업과 관광민예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너군다나 安城地域은 우리나라 鎗器產業을 비롯한 傳統工業 發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일찌기 「안성마춤」이라는 명성을 얻었던 만큼 安城鎗器產業의 振興은 우리 나라 工業開發의 本籍을 찾는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鎗器產業의 振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安城地域에 小規模 工業團地를 造成하고 群小鎗器製造業體들을 집단화함으로써 이른바 「鎗器마을」 형태로 개발하여 浮動하는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鎗

器產業은 소음과 종금속 오염 등 公害問題 때문에 工場用地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공정까지 관람할 수 있는 小規模 工團造成으로 鐘器業體들을 集團誘致하면 公害問題을 일괄처리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技術集的效果과 規模의 經濟性을 얻을 수 있는 외에 傳統民藝產業으로서 觀光과 연结시켜 地域經濟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둘째는 현지에 브라스 스크랩(brass scrap) 整製工場을 설립함으로써 鐘器의 主原料인 황동의 공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브라스 스크랩을 수입하는 대규모 공장에서 정제, 가공하여 유기제조업체로 배분하거나 고물상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서 충분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鐘器工團 인근에 브라스 정제공장을 설립하여 원부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다.

세째는 적극적인 技能人力의 양성이 필요하다. 鐘器製作에는 금형제작공, 주물공, 연마공, 선반공, 용접공, 기타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기능공 등 최소한 5~6명은 필요한데 대부분 업체들이 이에 못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수준 또한 15~20만원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기능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개별 영세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기능공을 양성하기는 곤란하므로 별도의 職業訓練院을 설치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째, 적극적인 新製品 및 技術의 開發이 필요하다. 즉 대부분의 업체가 자체의 人力으로 디자인 개발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대학교 수 등의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현실성이 없고 상품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기존의 제품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의 취향을 고려해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함

으로써 鐘器의 需要를 개발하는 한편 제조기술 과정을 근대화하여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관광명승지에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팝플렛, 기타 광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함께 포장개선과 엄격한 品質管理로製品의 高級化를 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광민예품으로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때 비로서 鐘器產業의 진흥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業들에 영세한 개별업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맷는 말

安城鐘器產業의 事例研究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開港과 함께 서구 文物의 大量流入과 일본의 식민지 경제정책 및 해방 이후의 급속한 大規模 工業化 과정에서 대부분의 傳統工藝產業은 斜陽化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傳統工藝產業은 속련공의 手作業과 傳統的인 技術 및 原料에 의한 工藝品의 製造란 점에서 첫째, 勞動集約的 產業으로 扱儲效果가 크고, 둘째, 비교적 적은 資本投資와 간단한 기계설비로 높은 附加價值를 얻을 수 있으며, 세째, 전통적인 技術 및 技法을 이용하므로 傳統文化의 계승, 발전이란 의미가 있고, 네째, 일정지역에 群集하여 地域特產物을 생산함으로써 觀光民藝產業으로 육성할 여지가 크다. 특히 최근 국민의 所得水準이 향상되고 생활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장식품이나 觀光記念品으로써 가치

를 새로이 인정받으면서 부터 傳統工藝品에 대한 需要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既存의 傳統工藝產業育成은 中小企業振興公團의 民俗工藝產業育成事業과 內務部의 地方特產物育成事業 및 農水產部의 農漁村副業團地育成事業 등으로 여러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新製品開發, 技能人力養成, 資金 및 技術支援, 販路開拓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의해 영위되던 自給的 生產體制가 해체되고 근대적 工場制工業으로 代替되는 과정이나 이들이 工業化에 미치는 영향 및 大企業과의 競爭下에서도 零細製造業體로 存立을 계속하는 이유 등을 알려져 있지 않다. 더구나 많은 傳統工藝產業이 아직도 농촌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사라져 가는 傳統工藝產業을 觀光民藝產業, 輸出產業, 혹은 農村工業開發의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곧 地方經濟의 活性화와 地域의 均衡開發 그리고 自立

經濟基盤의 強化를 위한 효과적인 政策手段이 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姜萬吉, 「朝鮮時代 商工業史研究」, 한길사, 1984.
 金光錫, 「韓國工業化폐단과 그 要因」, 韓國開發研究院, 1980.
 金沫鎬, 「安城鑄器產業에 관한 調查報告」, 「아세아研究」, 8-4, 1965.
 金文植 外, 「日帝의 經濟侵奪史」, 民衆書館, 1971.
 孟仁在外, 「安城鑄器匠」, 文化財管理局, 1980.
 梶村秀樹 外, 「韓國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1984.
 뿌리깊은나루社, 「韓國의 發見」, 京畿道編, 1983.
 _____, 「놋그릇장이의 울음」, 「숨어사는 의통박이」, 1977.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81.
 安城郡誌編輯委員會, 「安城의 脈」, 1981.
 李敬儀, 「韓國經濟外 中小企業」, 까치, 1982.
 李海珠, 「韓日比較經濟史論」, 比峰出版社, 1983.
 劉教聖, 「韓國商工業史」, 「韓國文化史大系Ⅱ」,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조기준, 「韓國近代經濟發達史」, 「韓國文化史大系Ⅱ」.
 中小企業振興公團, 「民藝產業綜合育成方案研究」, 1982.
 崔淳雨, 「韓國工藝史」, 「韓國文化史大系」.
 崔虎鎮, 「韓國經濟史」, 博英社, 1981.
 韓國史研究會編, 「韓國史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1.